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국제 금융시장 불안 다소 완화

경영 노트

- GE의 6가지 성장 트렌드와 미래 전략

사회 트렌드

- 직장인 48%가 불행 느껴
- 해외 소비 선호율 증가

저널 브리프

- 한국 경제의 넷크래커 타개법

洗心錄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 국제 금융시장 불안 다소 완화

-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 및 예금기준금리(1년 만기 기준)를 0.27% 인상 (6.12%→6.39%, 2.52%→2.79%)한 반면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각각 5.25%와 0.5%에서 동결하였음
 - 중국 인민은행의 동 조치는 금년 들어 기준율의 두 차례 인상에도 불구하고 2월중 소비자물가지수가 2.7%로 상승하는 등 물가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2월중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며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지속으로 총통화(M2)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7.8%로 2006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 일본은행은 지난 2월 정책금리를 0.25% 인상 한 후에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동결 조치한 것으로 분석됨
 - 미 연방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기관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 미국 및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은 중국 증시의 과열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완화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당분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중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과잉 유동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증시의 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미국의 주택시장이 경착륙되어 미국의 모기지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산된다면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로 미·일간 금리 격차가 축소되어 엔 캐리 청산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잠복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축소에 대비한 신용경색 및 환위험에 대한 상시적 대비가 필요**

□ GE의 6가지 성장 트렌드와 미래 전략*

- (개요) 이멜트 회장은 2006년 말, 주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GE의 고성장을 위한 6가지 성장 트렌드와 미래 전략을 설명함
 - 6가지 성장 트렌드는 소비경제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고성장이리라 예상되는 사업군으로서 이미 GE는 과감한 투자를 해옴
- (트렌드와 전략) 6가지 성장 트렌드는 인프라 기술, 신흥시장, 환경문제, 디지털 커넥션, 글로벌 유동성, 인구 통계적 변화를 말함
 - 이멜트 회장은 변동성이 높고 투자수익이 낮은 저성장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고성장 산업에는 선도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 옴
 - 이를 통해 GE는 올해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올라섰으며, 이멜트 회장 취임 이후 5년간 매출이 50% 성장함

< GE의 6가지 성장 트렌드와 미래 전략 >

성장 트렌드	미래 전략
인프라 기술	· 에너지, 항공, 교통, 석유, 가스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제품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
신흥시장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업 대 국가’방식의 전략 추진
환경문제	· 전력절감 조명기기, 低오염-高에너지 효율의 항공기 엔진 등 환경친화적인 ‘에코메지네이션* 제품’ 45개를 개발
디지털 커넥션	· 고객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도입 및 온라인 매출, 디지털 광고 등의 수익 사업 강화
글로벌 유동성	·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에 투자
인구 통계적 변화	· 고령화 등에 대비한 진단의료사업, 중산층 소비자를 위한 소매금융, 히스패닉 전문 CATV 등의 사업을 추진

*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은 환경을 의미하는 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 ‘Imagination at work’의 ‘Imagination’이 합쳐진 말로 친환경 전략을 의미

- (시사점) 기업의 고성장 여부는 미래 변화를 사업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우리 기업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GE는 6가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술, 고객가치, 마케팅 능력, 세계화, 혁신 등 5가지 성장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이 글은 동아경제(2007.03.15)에 게재된 “GE 제프리 이멜트 회장의 미래 전략”을 요약·재구성한 것임

□ 직장인 48%가 불행 느껴

-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스트레스의 원인은 '일과 직장 생활'인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48.2%인 데 비해 행복하다는 직장인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불행하다는 응답 비율은 2005년 40.2%에서 8%p나 증가함
 -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일과 직장 생활'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력'(32.5%), '무능력한 인간관계'(11.2%), '내 집 마련'(8.9%) 순임
-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 '직장과 일'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고 있음
 - 응답자의 33.4%가 최고의 행복 조건으로 '경제적 여유'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2005년 43.7%, 지난해 4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행복조건으로 선택한 비율은 2005년 28.4%에서 26.4%('06년), 17.9%('07년)로 줄어든 반면, '개인적인 여유시간 및 취미 활동'은 20.9%('05년)에서 22.9%('06년), 26.1%('07년)로 증가함

□ 해외 소비 선호율 증가

- 국민 1인당 소득이 1% 늘어날 경우 국내서비스 소비는 0.3% 증가에 그치는 데 비해 해외서비스 소비는 0.8% 증가해 국내서비스 소비 증가폭의 2.7배나 되고 있음
 - 1990년대에는 국내서비스 소비에 대한 해외서비스 소비 비율이 1990년대 10%대 초반에 그쳤으나 매년 증가해 최근에는 20%를 초과함
 - 이는 국내서비스에 지출한 돈이 연간 100만 원이라면 해외서비스에 2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임
- 해외서비스 소비의 절대적인 증가가 환율 하락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과 함께 큰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음
 - 해외서비스 소비는 해외 관광과 유학 및 해외 연수 등 상대적으로 국내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 및 주 5일 근무 등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와도 관련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해외서비스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넷크래커 타개법 *

- (배경) 효율성의 일본,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넷크래커(호두까는 기계)에 끼인 호두 형국이 된 한국 경제는 위기 탈출과 新성장을 위한 큰 틀의 해법이 필요함
 - 고도 성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중국은 전 세계 M&A 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하였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한 기지개를 시작하였음
 - 현실적으로 연구개발 강화와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지만, 특정 산업 분야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3대 타개법)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인재 및 산업 육성, 규제 축소를 통한 경제 활력 증대를 해법으로 제안함
 - (시장 개방) 유통 부문에서 이마트가 까르프에 승리하고, 가전 부문에서 LG와 삼성전자가 GE와 경쟁한 후 글로벌 톱 수준이 된 것처럼, 시장개방을 경쟁력 배양의 기회로 삼아야 함
 - ⇒ 한미 FTA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
 - (인재 및 산업 육성) 정보화와 지식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차세대 산업 육성이 필요함
 - ⇒ 정부 중심의 산업 육성이 아닌 민간 주도의 산업 육성이 필요함
 - (규제 축소) 정부는 규제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민간 기업의 활력을 증대시켜야 함
 - ⇒ 재정지출과 규제를 통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공공부문 확대는 시장의 자율성과 민간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시사점) 시시각각 글로벌화 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해법은 자율과 경쟁의 시장 원리에 있음을 강조함
 - 넷크래커 위기와 더불어 유가 상승 등 심각해지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기업의 경쟁력 축적뿐임
 - 기업들은 정부 보호에서 벗어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자로 남아야 함

* 이 글은 『이코노미스트』(2007.3.1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최근 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또한 사회 공헌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빈곤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지향하면서도 상업적 이윤 창출을 통하여 활동의 지속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말 서유럽의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사회정책에 대한 분권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체의 자립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고용 확대 및 사회 서비스의 확충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전체 근로자 중 사회적 취약 계층을 50% 이상 고용하거나,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 서비스에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 지원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시장 경쟁에서 존립과 성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NGO, 지자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경영의 주요한 이슈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민간 기업의 자선적 참여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업 경영의 전문성과 노하우 등 기업의 장점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는 일년에 단 한번도 아랫사람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핑계, 변명에 대해서는 화를 낸다.”

미셸 드 몽테뉴(1533-1592) : 프랑스의 도덕철학자, 작가